

서점 폐업 이대로 두고 볼 것인가

대도시 서점들 잇따라 문닫아... 국가정책 전략산업으로 육성해야

손재완

한국서점경영연구원 원장

출판계에 두꺼운 먹장구름이 몰려들고 있다. 출판사가 공들여 만들어 애써 배분해 놓은 책들이 팔리기는커녕 누더기가 된 채 산더미처럼 되돌아오고 있다. 도매상은 수급이 안돼 출판사에 지불조차 하지 못한 채 병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다. 여기저기서 하루가 멀다 하고 서점이 문을 닫고 폐업하기 시작했다. 지금 출판계는 일찍이 볼 수 없었던 총체적인 위기의 문턱에 서 있다.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휴업사태

아무래도 위기의 파도는 출판의 말초적인 신경조직이랄 수 있는 서점에서부터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서점조합연합회(서련)에 따르면 올들어 폐업을 하거나 잠정휴업으로 문을 닫은 서점이 지금까지 줄잡아 2백여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심각한 것은 이같은 현상이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대도시 서점들에서 연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의 경우는 양천구의 신흥서점을 필두로 70여개의 서점이 폐업했고, 부산은 청일도서 등 20여개점이, 대구 20여개점, 광주 20여개점, 대전 35개점이 이미 간판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숫자는 서련에 가입한 회원사만 집계한 것인데, 비회원 서점까지 포함한다면 폐업 서점수는 이보다 훨씬 상회할 것으로 추측된다. 이런 상태라면 연말까지 전국적으로 5백여개의 서점이 문을 닫을 것으로 내다보인다.

작년말 현재 서련 회원 서점수는 전국적으로 5천6백83개인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에서 5백여개의 점포가 문을 닫는다면 거의 10%에 가까운 서점들이 없어지는 셈이다. 서점이 늘어나도 시원치 않은 판국에 오히려 그만큼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은 결코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니다.

지난 연말경, 한 출판전문지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서점실태조사에서 서점운영의 최대 압박요인으로 '도서대여점'을 꼽았다(71%). 조사 당시에 이미 도서대여점이 전국적으로 무려 6천여개에 달함으로써 서점 숫자를 훨씬 상회해버렸다. 추산이긴 하지만 출판계에서는 약 1천억원이 넘는 매출액의 감소가 바로 이 도서대여점에 기인한 것

출판계의 먹장구름은 신경조직이라

할 서점의 위기사태에서 시작된다.

서울을 중심으로 전국 대도시

서점들의 폐업이 연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같은 현실의

일차적인 책임은 서점인들

자신에게 있겠지만, 수많은 불합리한

관행과 누적돼온 악습들에 의한

구조적인 모순이 한꺼번에 노출된 데

더 큰 원인이 있다.

으로 짐작하고 있다. 서점의 경영난을 가중시키는 또다른 요인으로는 대형서점의 등장(12.6%)과 작은 마진(12.3%), 높은 임대료(4.1%)를 꼽았다.

이 조사는 전국 서점의 76%가 평균 15.7평에 지나지 않는 협소한 매장공간의 영세 규모인 것으로 밝히고 있다. 여기에서 가족종사자에 의한 생계유지형 업체가 68.7%를 차지하면서 이른바 경영효율의 낮은 생산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드러냈다. 75%에 달하는 대부분의 서점들이 전세 아니면 월세로 높은 임대료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점을 옥죄는 몇가지 원인들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까, 서점의 낙후된 환경개선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정보화시대의 독자 요구(needs)를 충족시키는 전산화는 실상 그림의 떡이 되고 있다. 이같은 형편에서 소비자 만족을 위한 서비스 제공이란 생각지도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놓여 있다는 것이 서점실태의 현주소였다. 말하자면 서점 파국은 이미 이같은 실태조사에서 그 전모가 확연히 드러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기에 더하여 이른바 갖가지 반독서적인 사회분위기의 확대로 말미암은 도서구매력의 급격한 저하 현상은 곧바로 서점경영의 목을 죄면서 출판계 전체가 건잡을 수 없는 수렁 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한 것이다.



서점폐업이 전국 대도시에 잇따라 위기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사진은 지방서점에서 올라온 반품 서적들.

왜 이렇게 돼버린 것일까. 주변의 다른 소매 유통업들은 급변하는 환경과 상황에 적용하여 신속하게 탈바꿈 하거나 발빠른 변신을 이룩했는데, 어찌하여 서점계는 이렇게까지 되도록 속수무책이었을까.

말할 것도 없이 일차적인 책임은 서점인들 자신에게 있다고 하겠다. 사태의 추이를 충분히 예견하고 전망할 수 있는데도 여기에 대한 대비를 소홀히 한 책임은 마땅히 서점인들이 져야 한다. 그렇다고 할 때 사실 할 말이 하나도 없어진다. 서점인들이 잘못해서 서점이 문을 닫았다고 하면 더이상 무슨 할 말이 있겠는가. 문제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즉, 사태가 여기까지 온 데에는 오로지 서점인들만의 잘못이 전부가 아니라는 말이다.

그것을 반증하는 단적인 예를 하나만 들자. 일찍이 출판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 근본적인 개선점을 수없이 검토해 왔으면서 아직까지 아무런 결실을 얻지 못하고 있는 유통구조 문제가 가장 좋은 예이다. 출판계는 이 공통의 숙원 과제를 꺼안고 씨름을 한 지 벌써 수십년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년에 이르러서야 약간의 가시적인 진척 상황을 보이고 있을 뿐이다. 출판계 내부에 얽혀 있는 유통구조 문제 하나를 푸는데 이토록 오랜 세월을 보내고 있으니 다른 것은 더 말할 것도 없다고 한다면 막말이 될지 모르겠다.

하지만 아픈 데는 이야기를 해야 한다. 가령, 출판시장에서 관습처럼 되고 있는 거래관행의 불합리성, 도서대금 결제방법의 전근대성, 마케팅을 고려하지 않은 비과학적인 출판기획, 과도하고 무리한 광고, 근절되지 않는 중복출판 행위, 아직도 만연하고 있는 출판의 요행성 추구 등등 출판계는

문화유통박스 공동창고 기공식

단행본 17개사 참여...경기도 파주군에 1300평 규모



경기도 파주군 교하면 와동리에서 가진 (주)문화유통박스 공동창고 기공식 장면.

열린책들 정신세계사 실천문학사 등 17개 중진 단행본 출판사들이 모여 설립한 (주)문화유통 박스(대표 이석표, 실천문학사) 공동창고 기공식이 지난 9월 22일 출판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파주군 교하면 와동리 현장에서 있었다.

불황, 과다경쟁, 시장개방 등 여건악화로 구조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출판계의 현실을 극복하고 '공동영업, 공동창고 체계'로 출판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사업계획의 일환으로 착공된 공동창고는 1200평의 부지

에 연면적 1300평 규모로 올 연말 완공될 예정이다.

이번에 설립된 (주)문화유통 박스는 '도매상의 대형화' 성격이 강했던 최근 유통회사들의 설립, 합병 현상과는 달리 출판사들의 '수평적인 협력관계'라는 점에서 신선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들은 "자생적 문화공동체라는 설립 취지를 살리기 위해 신규참여의 문도 계속 열어놓는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제2회 '독서진흥상' 수상자 발표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김낙준)가 독서생활화의 풍토 조성을 위해 마련한 제2회 '독서진흥상' 수상자가 선정됐다. 독서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개인·단체·문고를 대상으로 심사한 결과 개인부문에서는 이은애씨(40)와 정정식씨(43), 단체부문에 삼성전자, 문고부문에 '황간새마을문고' 특별상에 '약대글방'이 각각 선정됐다.

대여점 책에서 다량의 세균검출

도서대여점에서 취급하는 책에서 다량의 미생물이 검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미생물학회(회장 김치경, 충북대 교수)는 <대여점 서적 미생물오염도 분석 결과보고서>를 통해 도서대여점의 책에서 페이지당 일반세균 1171마리, 곰팡이류 106마리, 대장균 4마리 등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특히 순환속도가 빠른 만화의 경우 2778마리가 검출됐고, 병원 근처의 대여점 책에서는 병원균인 살로넬라균과 쉬겔라균까지 다량 검출됐으며, 일반세균의 경우 다른 대여점보다 무려 13배나 많은 약7천마리가 검출돼 위험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서대여점에 청소년 유해도서 범람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김낙준)와 한국서점조합연합회(회장 김주팔)가 지난 7월부터 공동으로 전국 도서대여점의 대여도서 유형실태를 조사분석한 결과, 청소년의 정서에 악영향을 끼치는 유해도서가 상당수 유통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서울·부산·대전·광주에 영업지를 둔 도서대여점에서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로부터 제재 또는 경고결정을 받은 <특선성인만화> <미시> <오팔사십팔> <결작성인만화모음집> <잃어버린 섬> <아담과 이브의 방정식> <텍사스 죠카> <본능> <여자는 죽어야 한다> 등 음란·퇴폐도서가 유통되고 있음이 밝혀졌다.

'독서교육 정책개발 학술세미나' 개최

사단법인 한우리독서문화운동본부(회장 이민섭)는 '95 독서의 달 기념행사로 '독서교육 정책개발 학술세미나'를 지난 26일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장에서 가졌다. '5·31교육개혁과 독서교육'의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는 박철원 본부 부회장의 발제강연과 3편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누적되어온 인습을 개선하는 데 너무도 무감각했다는 것이 옳을 것이다. 남을 탓할 것도 없이 출판계에 쌓여온 고질이 오늘의 병세를 악화시켰다고 보는 것이 맞다. 즉, 서점만의 과실이 아닌 출판계 내부의 구조적인 모순이 마침내 오늘의 파국을 낳은 원인이란 말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몸이 아프고 병들었다고 해서 이대로 누워만 있을 것인가. 문을 닫고 간판을 내리는 서점을 강건너 불 보듯하고 앉아만 있을 것인가. 그럴 수는 없는 일이다. 이 위기는 하나의 기회일 수가 있는 것이다.

더이상의 폐업을 막는 길은

우선 무엇보다도 출판유통의 신경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서점을 살리는 길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본다. 적어도 더이상의 폐업을 막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는 말이다. 이를 위해서는 서점인의 자구적인 노력도 중요하지만, 전체 출판계가 서점을 생각하는 시각교정이 선행되어야 하겠다. 이를테면 서점경영 압박의 직접적인 요인이 되고 있는 도서대여점 문제를 범출판계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조직적으로 단호하게 대처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서점운영의 큰 몫을 차지하는 유통마진 문제도 어느 일방의 이익만을 고집할 일이 아니라 양쪽이 공평하게 균형을 이루는 합리적인 조정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부분의 서점들의 현안문제가 되고 있는 임대료 문제도 좀더 거시적인 차원에서 고려해볼 때가 됐다. 가령, 이웃 일본의 경우만 하더라도 대도시에 신축되는 빌딩들은 입주자의 편의를 돕는다는 취지 아래 서점이나 은행, 우체국을 우선적으로 유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신축빌딩들은 서점을 선호하고 있는데, 이 경우 서점업의 성수기와 비수기가 분명하므로 임대료 조건을 매출과 연계시켜 올리고 내리는 성·비수기 연동제를 도입하고 있다고 한다. 요컨대 장사가 잘될 때는 임대료를 많이 받고, 잘 안될 때는 적게 받는 변동시스템인 셈이다. 이 얼마나 합리적인 방법인가. 그러면서 그들이 빌딩내의 서점유치를

선호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마지막으로 이제 정부도 출판문화를 보는 안목을 바꿀 때가 됐다고 본다. 출판을 그저 문화사업쯤으로 치부할 일이 아니라, 국민경제의 동맥을 형성하는 하나의 산업군으로 살피는 노력이 있어야 하겠다.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출판산업을 국가정책 전략산업으로 편성하면서 문화적인 시각과 함께 경제산업적인 개념을 아울러 도입하는 것이 이미 보편화하고 있다고 하는 것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 1991년 9월에 통상산업사 산업구조심의회 생애학습진흥부에서는 생애학습에 매우 관련이 깊고 또한 그 진흥에 있어 중요한 산업으로 출판산업을 꼽았다. 생애학습부에서 설정했던 일본의 출판산업의 과제로서 ① 업계 전체로서의 독서환경의 정비 ② 정보제공 서비스의 충실 ③ 서점에 있어서 서비스의 충실 ④ 노동력 확보와 인계육성 ⑤ 유통의 합리화 ⑥ 출판문화의 보호·육성 ⑦ 세계에 대한 문화·정보 발신기로서로서의 역할 등 7가지를 설정하고 출판문화산업진흥회에 연구를 위촉하였고, 진흥회는 근 4년간의 연구끝에 지난 6월 <출판문화산업 비전21>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것은 출판산업을 범국민적·국가적 산업으로 인식하는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지금 우리는 아이러니컬하게도 국가경제적인 각종 통계를 보면 10%의 성장을 누리며 호황국면에 서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사정이 이렇게 순항을 거듭하는데, 이 좋은 시절에 출판계는 느닷없는 서리를 맞고 있다. 경제가 순항하려면 밝은 곳, 어두운 곳 없이 골고루 잘 나가야 한다. 한쪽은 잘 나가고 있는데 다른 한쪽은 뒷걸음질치고 있다면 그것은 순탄한 항해가 아니다. 이럴 때 눈을 들어 무엇을 봐야 하는가. 그것은 너무도 자명하다. 어두운 곳, 주름살이 지는 곳에는 분명히 아픈 데가 있는 법이다. 아픈 데를 알아야 병을 고칠 수 있다. 당사자는 물론, 주위의 관심있는 계층들이 그것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서점을 살리는 길이 바로 거기에 있다. ❖